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시월 사역 소식 (2023년)

보통 이맘때쯤이면 갑자기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눈보라도 한차례 날리며 갑작스런 겨울 준비를 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곳 중앙아시아에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저장식품도 준비하고, 이곳에 있는 고려인들과 저희 한국 교민들도 감장을 하는 계절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들도 이제는 김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장을 충분히 담그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수년전까지는 저장시설이 미비해서 겨울에는 야채 과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온 저장기술이 좋아져 겨울에도 비싸지기는 해도 야채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장을 하지 않고 조금씩 담가 먹으려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김치 축제도 생겼는데 저희도 참여하여 한인회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김치를 구매해서 현지 직원들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당근, 토마토, 피망 등을 미리 구입해 겨울용 저장 식품을 만들어 지하 창고에 저장하여 겨우내 빵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사용합니다. 올 겨울도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현지 공동체와 문서 사역

지난 6월에 번역 사역 팀장인 호주 사역자 로빈이 방문하여 신약주석 완간 기념식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학교 사역도 함께 하며 국제 단체에서 15년 이상을 저와 함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번역팀에서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떠날 때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12년에 걸친 신약주석과 구약 성경해석과 관련된 몇몇 단권 번역을 하여 출간해온 오랜 사역에 어느정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사역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은퇴하고 현지를 떠난 로빈 교수가 앞으로도 문서 사역에 관여하며 함께 하게 됩니다. 현지 번역 사역자들과 온라인으로 번역 및 감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도 미국 사역자가 함께 참여하고 저는 이곳 현지에서 인쇄와 보급을 위한 사역을 함께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성된 13권의 키르기즈어 신약 주석과 구약 단권 도서들이 현지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잘 활용되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공동체에는 몇몇 한국인 가정과 외국인 가정, 그리고 중국인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지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년부와 청소년들이 많아서 주말을 이용하여 믿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금요카페,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찬양팀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젊은 이들의 사역이 활발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연합 모임 등을 통해 여름 휴가철을 알차게 보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사역자들도 약간의 쉼과 충전을 통해 한해를 잘 마무리하며, 공동체 전반적인 소그룹 모임과 사역자들의 모임이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내가구 목수로 일하는 형제가 예전에 러시아 카잔에서 신학훈련을 받고 돌아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설교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몇 년전에 교회 젊은 청년들에게 가구 설계와 제작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형제는 아주 성실하게 배워 일감을 맡아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사역

여름 기간동안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 만들기 체험등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려인 협회의 문화센터에서 13년동안 함께 참여하며 협력해 왔던 모든 한국인 사역자, 그리고 고려인협회, 현지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비록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은 마무리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협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어 약 50여명의 학생들과 성인반을 모집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굿파트너 기관에서 비자를 받으며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 중 한명도 중급반을 맡아 함께 하기로 하여 한국어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려인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에 비자



를 신청할 때에 한국어 수준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한국행 비자와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실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 자녀들의 수가 줄었지만, 키르기즈 전체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대사관이나 한인회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주관하여



이곳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함께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김치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시범, K-Pop 과 댄스 시범, 그리고 떡과 잡채 등 한국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김치를 판매하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대학교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 봉사하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러 온 학생들도 만나서 기쁜 마음에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김치도 나누었습니다. 고려인협회에서의 한국어 교실이 잘 진행되고 고려인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한국어 과정이 이어져 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NGO 사역과 기타 사역

NGO 기관이 저희 ‘굿파트너’에는 비자를 받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과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자는 고려인 협회를 통해 협력하며 사역을 지속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역자도 아내가 이곳 현지 고려인이지만 본인과 자녀들은 비자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저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있는 비자 T/O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고, 한국인 사역



자들과 협력을 통한 귀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진흥장학재단을 통해 고려인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장학사업과, 원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통해 이곳 현지에 석탄지원과 농촌지역을 위한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지역을 위한 석탄지원 사업을 통해



잘랄-아바드 지역 3개 마을, 그리고 이스쿨 지역에 5개 마을, 고려인 협회를 통해 30가정에 석탄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스쿨쪽에 있는 발록치라는 도시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지만 대중교통이 없이 고립되어 있는 마을에 학교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어렵게 통학을 하며 생활하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서 이 지역을 방문한 이후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17인승 미니버스를 중고로 구입하여 3대를 제공해 주기로 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곳곳을 누비며 시골 마을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장거리를 운전할 때에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현지 직원들에게도 이 일과 모든 일의 과정을 통해 보람있고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며,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간사 & 김간사 드림